

진도군, 농촌 인력 해결 위해 '시니어 일자리 허브 센터' 운영

올해 처음 도입...진도읍·서진도·선진농협 3곳 영농 인력 중개·수수료 '무료'...일손 부족 해소

진도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의 어려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진도군 시니어 일자리 허브 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3개 농협(진도읍, 서진도, 선진농협)에 인력중개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품목별 농·작업에 대한 구인·구직 신청 접수를 받아 본격적인 영농 작업 일자리 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농촌 인력 중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일자리 참여자나 일손 부족 농가는 각 농협의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는 무료이다.

특히 군은 고령농, 여성농, 소농,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근로자의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등은 진도군에서 지원하고, 근로

자 임금은 농가가 부담한다.

군은 시니어 일자리 허브 센터 운영으로 농번기 유휴 인력을 영농 인력으로 확보해 지역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에 큰 도움을 제공, 농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노령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중단 등으로 농촌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니어 일자리 허브 센터는



일손 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전남농업기술원·팜에이트와 스마트팜 업무협약

스마트팜 R&D, 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미래농업 선점 협력체계 구축



(왼쪽부터) 팜에이트 강대현 대표, 명현관 해남군수,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 원장

해남군은 전남농업기술원, 팜에이트(주)와 함께 스마트 팜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명현관 군수와 전남농업기술원 박홍재 원장, 팜에이트(주) 강대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일 해남

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해남군이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스마트 팜의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식물공장을 운영하는 스마트팜 전문 기업으로, 연간 7,787톤 규모의 신선 채소와 파프리카 등을 생산, 소포장 완제품 셀러드로 출하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스마트 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생산, 유통, 판매까지 다방면으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종개발과 연구 사업도 진행 중이다.

협약을 통해 해남군과 전남농업기술원, 팜에이트는 스마트 팜 기술개발 및 연구협력, 미래농업 스마트 팜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 팜 이용 치유농업 활성화, 스마트 팜 시설연구, 가정간편식(HMR)제품 연구개발, 미래농업기술 공동연구과제 수행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팜은 농림·축산·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드는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이다.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미래 성장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남농업기술원의 스마트 팜 연구개발 기술지원과 팜에이트의 현장 적용기술 노하우가 우리군의 농수산업과 접목된다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가장 먼저 개척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미래농업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탈북민 정착지원시설 국비 2억 원 확보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신규 인구 유입 농어촌 활력 기대

강진군의 '착한(着韓)스테이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에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개선할 기초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총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강진군 '착한(着韓)스테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01년 탈북해 마량면에서 수산업(전복양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은영씨의 사례가 방송에 소개되면서 강진군으로 정착하기 위해 문의하는 탈북민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들을 상담하거나 수용할 시설이 없어 강진 착한스테이를 구상하게 됐다.

군은 내년까지 마량면 마량리 일원에 총사업비 4억원(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커뮤니티 공간과 게스트룸을 갖춘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신축·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예정지인 강진군 마량면 일대는 전복 양식과 김 양식 등 수산업이 발달하고, 주변 농공단지과 사업체에

일자리가 많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창출과 정착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착한스테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농어촌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강진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상담과 교육,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탈북민 대다수가 정착 초기에는 수도권을 선호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농어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농어업 기반이건이 우수한 강진군에서 착한스테이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 유입과 농어촌 활력 증진의 좋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안돼요"

산약초,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등 임산물 채취 시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공짜'라는 유혹에 이끌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뜯으면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장흥군은 임산물 무단 채취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

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39억원 투입 안전하고 탄탄한 도로환경 조성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확·포장 공사 및 시설물 보수



완도군은 도로 교통 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행되는 주요 사업으로 굴곡 위험구간인 신지 군도5호선(동촌~동고) 구간 외 5개소에 대해 선형개선사

업과 도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고금 군도7호선(정학~용초) 구간 외 3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확포장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6억 원을 들여 기존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도색,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 시설물 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탄탄한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차재철 안전건설과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